

3

39. 위 글의 등장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 ① 흥 기자는 사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전달하고 있군.
- ② 소장은 취재 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보여 주고 있군.
- ③ 비서관은 현장에 등장하면서 언론을 의식하고 있군.
- ④ 기자들은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부담스러워하고 있군.
- ⑤ 주치의는 기자 회견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취하고 있군.

40. <보기>를 바탕으로 ㉠~㉣을 이해할 때,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이 글의 제목 『출세기』의 ‘출세’는, 간혀 있던 사람이 세상에 나오게 된다는 의미의 ㉠출세이기도 하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거나 유명하게 된다는 의미의 ㉡출세이기도 하다.

- ① ㉠에는 ㉡뿐만 아니라 ㉢를 확산하는 주인공의 기대가 표현되어 있다.
- ② ㉠에는 주인공이 ㉡를 계기로 ㉢로 나아가는 상황에 대한 주변 인물의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 ③ ㉡에는 ㉠에 대한 주인공의 갈등이 드러나 있다.
- ④ ㉡에는 ㉢를 추구하는 주인공의 의지가 담겨 있다.
- ⑤ ㉢에는 ㉡를 계기로 ㉢에 이르러자 하는 주인공의 집념이 드러나 있다.

[41~4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듣는 이를 가리키거나 부르는 국어의 2인칭 대명사로는 ‘너, 너희, 자네, 당신, 임자, 그대, 여러분, 귀하(貴下), 노형(老兄), 제군(諸君)’ 등이 있다. 이 외에 ‘자기’도 요즘 젊은 층에서 2인칭 대명사로 자주 쓰이고 있다.

이주낙출 말인 ‘너’는 말하는 이보다 손아래의 사람에게 쓰거나 미성년 또는 같은 또래의 친한 친구 사이에 쓴다. ‘너희’는 듣는 이가 같은 또래의 친구나 아랫사람일 경우, 그 듣는 이를 포함한 여러 사람들을 이를 때 사용한다. 예사 낮춤 말 자네는 ‘당신’보다는 낮고 ‘너’보다는 높은 말이다. 듣는 이를 대접하고자 할 때 ‘너’ 대신에 사용한다. 연배가 있는 사람이 친교가 있는 동년배나 손아랫사람에게 쓰는 말이다.

‘당신, 임자, 그대’는 예사 높임 말이다. ㉠‘당신’은 배우자 혹은 그리 가깝지 않은 동년배에게 쓴다. 이 대명사는 선생, 부모, 상사 같은 아주 높은 분에게는 거의 쓰지 않는다. 아울러 ㉡‘당신’은 3인칭 제키 대명사라도 쓰이므로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임자’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으로 나이가 지긋한 부부 사이에 쓰인다. 또한 나이가 비슷하면서 잘 모르는 사람이나, 알고는 있지만 ‘자네’라고 부르기가 거북한 사람, 또는 아랫사람을 높여 이르는 2인칭 대명사이다. ‘그대’는 ‘당신’과 비슷한 등급의 존대어로서 시(詩)와 같은 문학 작품에서 주로 쓰인다. 그리고 ‘여러분’은 듣는 이가 여러 사람일 때 그 사람들을 높여 이를 경우에 사용한다.

국어는 원래 이주낙출의 2인칭 대명사 형태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그 대신에 친족명이나 직함 등의 호칭을 사용하는 일이 많다. 예컨대 이주낙출의 대상자에게는 대명사 대신 ‘선생님, 할아버님’ 등의 존대 호칭을 상황에 따라 골라 쓰고 있다.

일상에서는 2인칭 대명사가 쓰이는 일이 그리 많지 않다. 게다가 예스러운 한자어 ‘귀하, 노형, 제군’ 등 상대방을 높이는 기능을 하던 말들도 대화 상황은 물론 편지와 같은 문어체 상황에서 서조차 점점 사라져 가고 있다. ‘자네’의 경우도 하계체의 위축으로 인해 그 쓰임이 줄어들고 있다. 사실, 대화 상황에서는 눈앞에 있는 사람을 구태어 가리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말에서는 2인칭 대명사를 아예 생략하는 일도 많다.

41. 위 글의 ‘2인칭 대명사’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2인칭 대명사 중에는 듣는 이와 말하는 이를 함께 가리키는 것도 있다. 우의 (1인칭)
-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친밀도는 2인칭 대명사의 쓰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③ 듣는 이를 낮추는 2인칭 대명사는 높임의 등급이 구분된다.
- ④ 같은 또래 사이에 쓰이는 2인칭 대명사는 단수와 복수의 구별이 없다.
- ⑤ 말하는 이와 듣는 이가 마주하는 대화 상황에서 2인칭 대명사는 생략될 수 없다.

42. <보기>의 ㉠~㉣ 중, ‘2인칭 대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보 기>

한 상무: 김 부장, 일찍 왔군. 많이 기다렸나?  
 김 부장: ㉠상무님도 때 맞춰 오셨네요. 저도 방금 도착했어요. 그나저나 저희 고모님이 오늘은 좀 늦으시는군요.

한 상무: 뭘, 아직 5분도 안 지났는데. 그러고 보니 ㉡고모님 뵙는 게 몇 년 만인가? ㉢우리를 한가식처럼 챙겨 주셨지.

김 부장: 어, 저기 ㉣네외분이 같이 오시네. 여깁니다. 고모, 고모부!

고모: 어머! 이게 누구야? 한 상무 아니야? 우리 ㉤김 부장 잘 좀 부탁드려요.

- ① ㉠      ② ㉡      ③ ㉢      ④ ㉣      ⑤ ㉤

43. 밑줄 친 단어들인 ㉠과 ㉡처럼 서로 다른 인칭으로 묶인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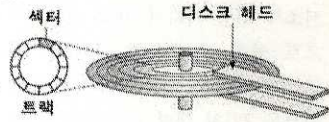
- ① [ 너 어제 내가 말한 대로 했지?  
 일전에 너의 발표를 듣고 큰 감명을 받았단다.
- ② [ 난 자기가 모르는 게 없는 줄 알았어. 그인칭 (청사)  
 학생들은 자기 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고 있다. 3인칭 (학생들)
- ③ [ 자네가 바로 우리 회사가 찾던 인재야.  
 요즘 자네의 혈색이 아주 좋아 보이는데.
- ④ [ 그대가 보여 준 정성은 영원히 잊지 않겠소.  
 서영 씨, 환히 웃는 그대 얼굴이 제 머리를 맴돕니다.
- ⑤ [ 여러분이 보내 주신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여러분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기술 개념 원리 과정

하드 디스크는 고속으로 회전하는 디스크의 표면에 데이터를 저장한다. 데이터는 동심원으로 된 트랙에 저장되는데, 하드 디스크는 트랙을 여러 개의 섹터로 미리 구획하고, 트랙을 오가는 헤드를 통해 섹터 단위로 읽기와 쓰기를 수행한다. 하드 디스크에서 데이터 입출력 요청을 완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접근 시간이라고 하며, 이는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된다. 접근 시간은 원하는 트랙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소요되는 탐색 시간과, 트랙 위에서 해당 섹터가 헤드의 위치까지 회전해 오는 데 걸리는 대기 시간의 합이다. 하드 디스크의 제어기는 '디스크 스케줄링'을 통해 접근 시간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① 200개의 트랙이 있고 가장 안쪽의 트랙이 0번인 하드 디스크를 생각해 보자. 현재 헤드가 54번 트랙에 있고 대기 큐에는 '99, 35, 123, 15, 66' 트랙에 대한 처리 요청이 들어와 있다고 가정하자. 요청 순서대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을 FCFS 스케줄링이라 하며, 이때 헤드는 '54 → 99 → 35 → 123 → 15 → 66'과 같은 순서로 이동하여 데이터를 처리하므로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356이 된다.

만일 헤드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거리가 가장 가까운 트랙 순서로 이동하면 '54 → 66 → 35 → 15 → 99 → 123'의 순서가 되므로,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1로 줄어든다. 이러한 방식을 SSTF 스케줄링이라 한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FCFS 스케줄링에 비해 헤드의 이동 거리가 짧아 탐색 시간이 줄어든다. 하지만 현재 헤드 위치로부터 가까운 트랙에 대한 데이터 처리 요청이 계속 들어오면 먼 트랙에 대한 요청들의 처리가 계속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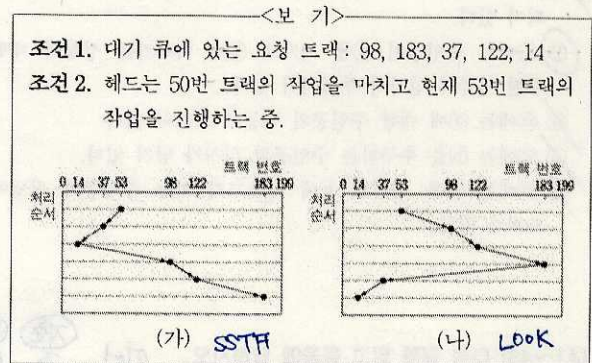
이러한 SSTF 스케줄링의 단점을 개선한 방식이 SCAN 스케줄링이다. SCAN 스케줄링은 헤드가 디스크의 양 끝을 오가면서 이동 경로 위에 포함된 모든 대기 큐에 있는 트랙에 대한 요청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위의 예에서 헤드가 현재 위치에서 트랙 0번 방향으로 이동한다면 '54 → 35 → 15 → 0 → 66 → 99 → 123'의 순서로 처리되며, 이때 헤드의 총 이동 거리는 177이 된다. 이 방법을 쓰면 현재 헤드 위치에서 멀리 떨어진 트랙이라도 최소한 다음 이동 경로에는 포함되므로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SCAN 스케줄링을 개선한 LOOK 스케줄링은 현재 위치로부터 이동 방향에 따라 대기 큐에 있는 트랙의 최솟값과 최댓값 사이에서만 헤드가 이동함으로써 SCAN 스케줄링에서 불필요하게 양 끝까지 헤드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없애 탐색 시간을 더욱 줄인다.

\* 대기 큐: 하드 디스크에 대한 데이터 입출력 처리 요청을 임시로 저장하는 곳.

44.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데이터에 따라 트랙당 섹터의 수가 결정된다. *미리 구획해놓음*
- ② 헤드의 이동 거리가 늘어나면 탐색 시간도 늘어난다.
- ③ 디스크 스케줄링은 데이터들의 처리 순서를 결정한다.
- ④ 대기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회전 속도에 영향을 받는다. *○*
- ⑤ 접근 시간은 하드 디스크의 성능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이다. *○*

45. <보기>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에서 헤드가 이동하는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스케줄링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   |      |      |                                    |
|---|------|------|------------------------------------|
|   | (가)  | (나)  |                                    |
| ① | FCFS | SSTF |                                    |
| ② | SSTF | SCAN | → SCAN이라면 헤드가 트랙의 끝인 199까지 왔다가야 함. |
| ③ | SSTF | LOOK | 다. 자음에서...                         |
| ④ | SCAN | LOOK |                                    |
| ⑤ | LOOK | SCAN | 54 → 35 → 15 → "0" → 66 → 99 → 123 |

46. 헤드의 위치가 트랙 0번이고 현재 대기 큐에 있는 요청만을 처리한다고 할 때, 각 스케줄링의 탐색 시간의 합에 대한 비교로 옳은 것은? [3점]

- ①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SSTF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같다.
- ②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내림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STF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작다. *크다*
- ③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과 LOOK 스케줄링에서 탐색 시간의 합은 다르다. *같다*
- ④ 요청된 트랙 번호들이 오름차순이면, FCFS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같다*
- ⑤ 요청된 트랙 번호들에 끝 트랙이 포함되면, LOOK 스케줄링이 SCAN 스케줄링보다 탐색 시간의 합이 크다. *같다*



[47~5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sup>자본</sup> <sup>주의</sup> <sub>하</sub> <sub>중</sub>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은 자신의 대표자를 뽑아 국정의 운영을 맡기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관계와 관련하여 근대 정치의 고전적인 딜레마가 내포되어 있다. 가령 입법안을 둘러싸고 국회의원과 소속 지역구 주민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의 의사를 우선하는 것이 옳을까?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국가의 모든 권력의 행사가 주권자인 국민의 뜻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지역구 주민의 뜻에 따라 입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이 조항에서 근거를 ㉠ 찾으면 될 것이다. 이 주장에서와 같이 대표자가 자신의 권한을 국민의 뜻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고 할 때 그런 대표 방식을 ㉡ 명령적 위임 방식이라 한다.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는 민주주의의 본래 의미가 충실하게 실현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이 국가 전체의 이익과 다를 경우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한편 우리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제40조),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제46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입법권이 국회에 속하는 이상 입법은 국회의원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의 목적은 국회의원 각자가 현실적으로 표출된 국민의 뜻보다는 국가 이익을 고려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지시에도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대표자가 소신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대표 방식을 ㉢ 자유 위임 방식이라고 부른다.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구체적인 국가 의사 결정은 대표자에게 맡기고, 국민은 대표자 선출권을 통해 간접적으로 대표자를 통제한다. 국회의원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갖는 이 대표자 선출권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유 위임 방식은 헌법 제1조 제2항에도 모순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 위임 방식에서는 국민이 대표자를 구체적인 사안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되어 민주주의의 원래 의미가 퇴색될 우려가 있다. 극단적으로는 대표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데 권한을 남용하더라도 제재할 수단이 없게 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에 따라서는 국가의 의사 결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대표자를 직접 통제할 수 있는 ㉣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기도 한다.

47. 위 글의 전개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두 견해의 특징과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 두 견해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 ㉢ 두 견해가 서로 인과 관계에 있음을 논증하고 있다.
- ㉣ 두 견해의 공통점을 부각하여 논지를 강화하고 있다.
- ㉤ 한 견해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다른 견해를 비판하고 있다.

명령적 위임방식 vs 자유위임방식

48. <보기>의 상황에 ㉠, ㉡를 적용할 때,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어떤 나라의 의회 의원인 A는 법안 X의 의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소속 지역구 주민들은 법안 X가 지역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되리라는 우려에서 A에게 법안 X에 반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 ㉠: A는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확신할 때는 X에 찬성할 수 있다.
- ㉡ ㉡: A는 지역구 주민의 의사가 자신의 소신과 다르다면 기권해야 한다.
- ㉢ ㉢: A는 반대하기로 선거 공약을 했다면 X에 반대해야 한다.
- ㉣ ㉣: A는 소속 정당의 당론이 찬성 의견이라면 X에 찬성해야 한다.
- ㉤ ㉤: A는 지역구 주민들의 우려가 타당하더라도 X에 찬성할 수 있다.

4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자유 위임 방식을 채택한 국가에서 ㉡의 도입은 선택적이다.
- ㉡ 법률안 등을 국민이 투표로 직접 결정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 명령적 위임 방식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를 도입할 때에도 나타날 수 있다.
- ㉣ 일정 연령에 도달한 국민에게 차별 없이 대표자 선출권을 부여하는 제도는 ㉡에 해당한다. → 자유위임방식 or 명령적 위임방식
- ㉤ ㉡의 도입은 국민과 대표자 사이의 신뢰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간접민주주의라면 무관지 OK

이 문제는 ㉠ Native Speaker 의 관점으로 짚기!  
㉡ 모호하면 (문장구조 등일하게)

50. ㉢의 문맥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목적어와 그나마 의미제일 비슷한거.

- ㉠ 누나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 ㉡ 아버지는 이 약을 복용하고 생기를 찾았습니다. 리복하다
- ㉢ 그는 잃어버린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을 계속했다.
- ㉣ 형은 자신의 직성에 맞는 직업을 찾으려 노력했다.
- ㉤ 그들은 자신의 안일과 이익만을 찾다가 화를 입었다. 좇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시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김강원입니다.

아제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끝이 났습니다.

여들 목표하셨던 소의 성과를 이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관계없이 그간 열심히 달려오신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3 학생들은 처음 재수/상수생 선배들과 함께 시험을 보게 되어 '꼴아 앓은' 것이고, 재수/상수생 친구들은 대체로 모든 성적이 우뚝해왔지는 않은가 걱정되는데요.

못 봤다고 낙담할 필요도, 잘 봤다고 기고만강해갈 필요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여간 공통적으로 6월 모의평가에 확실하게 분석해주신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시험장 본 경우**에는 좋은 전수에만 연연한 나머지 틀린 문제를 간파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철저한 자세로 틀린 문제를 분석하세요. 그리고 다시 풀이하면서 아름다운 선지들도 다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이 면은 여백입니다.

**시험을 못 본 친구라면** 만약 '내가 공부를 열심히 안 했다...'고 느낀다면 Pass!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점수가 나지 않았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 ① 우선 정답 광을 많이 했는지 ( 화: 평일 7~8시간 주말 10~12시간  
 권장: 평일 8~10시간 주말 12~14시간 )

② 광을 봤어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꾸준히 해왔는지

- ( 언어 : 기출문제 무한 반복  
 수리 : 매일 밤~이 풀이 (3등급이하 기본 유형 정리)  
 외국어 : EBS + 독해연습 )

다시 한 번 살펴보게 바랍니다.

제가 작별과 마찬가지로 상급으로 하고 강연에도 참여 직접 알려드리고 싶지만

당장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그 다음주는 휴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험생활 가이드 다시 한번 읽어주시고 스스로 자신의 학습을 점검해주세요.

늘 응원하겠습니다. 더욱 정진하십시오 16 / 16

김강원 (가필) 드림.